

06 | 22년 수능 10~13

1. 지문을 나누면서 제대로 읽자

이 글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 즉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모순을 지적한 트리핀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달러화의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달러화가 과잉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한 트리핀 교수의 지적처럼 1970년대 초에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 이유를 기축 통화와 환율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이 계속된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주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2. '경제성'이라는 것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또는 Ockham's Razor)은 흔히 '경제성의 원리' (Principle of economy), 검약의 원리(*lex parsimoniae*), 또는 단순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프란체스코회 수사였던 오컴의 윌리엄 (William of Ockham)의 이름에서 따왔다. 원문은 라틴어로 된 오컴의 저서에 등장하는 말이다.

- 많은 것들을 필요없이 가정해서는 안된다" (*Pluralitas non est ponenda sine necessitate.*)
- 더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Frustra fit per plura quod potest fieri per pauciora.)*

간단하게 오컴의 면도날을 설명하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given two equally accurate theories, choose the one that is less complex)'는 뜻이다. 여기서 면도날은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잘라내 버린다는 비유로, 필연성 없는 개념을 배제하려 한 "사고 절약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라고도 불리는 이 명제는 현대에도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 지침으로 지지받고 있다.

예를 들어,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는 나무가 벼락에 맞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나무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적절히 그을린 다음 자신이 그을렸다는 흔적을 완전히 없앤 것일 수도 있다. 이 상황을 판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해 본다면, 나무가 그을린 것은 벼락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나무가 벼락에 맞아서 그을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은 수의 가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문분석

①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① 기축통화
/ ②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②
/ ③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③ 경상수지
/ ④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④ 트리핀의 이론 : 트리핀 딜레마 : 두 가지 상충되는 상황
/ 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	⑤ 딜레마의 원인

Keyword 1 딜레마: 어원은 그리스어 di(두 번)와 lemma(제안 혹은 명제)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하면 진퇴양난이나 '궁지에 몰렸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딜레마(Dilemma)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제안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한다.

⑥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①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 ⑦ 이후 ①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⑧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⑥ 국제 유동성 ⑦ 브레턴우즈 체제의 달러화 추가 ⑧ 달러화 추가의 결과
/ ⑨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 ⑩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하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 ⑪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 ⑫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⑨ 문제배경 제시 : 금 준비량 급감 ⑩ 브레턴우즈 체제의 한계 ⑪ 문제 발생 순서 : 통화 투기 ⑫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p>// ㉓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 ㉔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㉓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p>	<p>㉓ 기축통화 유지 ㉔ ㉓의 이유</p>
---	------------------------------

[글쓴이의 관점]

기축통화 - 경상수지

1. (이론상)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에 구조적 모순: 트리핀 딜레마
2.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지식: 금 본위제체와 금 환 본위제체
3.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4.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달러화 기축통화 역할 지속과 규모의 경제

[이해를 제대로 하기 힘든 포인트]

기축통화라든가 경상수지라든가
실제 수출 관련하여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해당 사례는 일본과 독일에 엿을 먹였던 ‘플라자 합의’의 한 원인이자, 정말로 복잡했던 그 시기에 상황을 특정 이론으로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지문이 주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1. 단어도 어렵고
2. 이론의 조건과 현실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해야 한다는 점

이는 마치 체스를 처음 배울 때 해매는, 그런 구성을 목적으로 둔 지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글 쓰는 사람의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옛날에 ‘헌터X헌터’라는 만화를 봤는데, 그 작가의 가장 좋은 점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대초 철저하게 스토리를 전개 시킨다는 점이다 (물론 너무 게으른 토가시라, 지금은 안보고 있음) ‘헌터X헌터’는 분명 어려운 만화였지만, 그 당시 나름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PRG게임을 할 때 게임의 물을 숙지하듯이, 주어진 만화에서 주어진 물을 계속 확인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전개를 직접 느끼면서 봤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지문은 복잡한 조건과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통한 복잡한 게임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단어를 통해 발생한 게임의 물을 정확히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 나는 생각한다.

01

순서개념

10.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0	48.8	2	6.2	51.2	11.9	10.9	17.8

선지 1번,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선지 3번,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선지 4번,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선지 5번,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지 2번,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문제 상황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다르다. 즉, 순서적으로 딜레마 상황의 더 뒤에 있는 과정을 말했기 때문에, 해당 선지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EBS 해설

1문단에서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이 어떤 전망을 하였는지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②

02

비교관계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문항 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1	71.9	5	16	23.1	18.5	12.2	28.1

선지 1번,

[문제상황]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

[대처]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선지 2번,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

선지 3, 4번,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 선택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것인데, 금 생산량을 증가하면 국제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트리핀 딜레마의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

EBS 해설

3문단의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라는 진술을 통해 ‘평가 절상’이 ‘자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문단을 통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달러화가 금과 함께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으며, 금 1온스와 35달러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일정 금액의 마르크화에 대응하는 달러화의 금액이 기존에 비해 더 커지게 되므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Keyword 2 A가 B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해당 표현들, 즉 비교 표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1. 말하려고 하는 것
2. 비교 기준

해당 표현이 적용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에서

-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되었다’는 것이고
- 비교 기준은 ‘달러화’다.

비교 표현에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잡아야, 선지 5번에서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03

계산식 구하기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문항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2	61.7	5	5.9	14.8	19	19.8	38.3

1번 선지, 금본위제는 금을 기준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다.

2번 선지, 이미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의 경우처럼 환율의 가짓수가 바뀌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3번 선지, 개수에 대한 공식은 ${}_n C_2$ (n 은 국가 수)이며, 국가 수가 하나 증가하면 ${}_{n+1} C_2$ 이다. 따라서 국가수가 하나 증가할 때의 환율의 전체 가짓수의 증가분은 ' ${}_{n+1} C_2 - {}_n C_2$ '이다.

$${}_n C_2 = \frac{n(n-1)}{2!}, \quad {}_{n+1} C_2 = \frac{n(n+1)}{2!}$$

$${}_{n+1} C_2 - {}_n C_2 = \frac{n(n+1)}{2!} - \frac{n(n-1)}{2!} = \frac{n(n+1-n+1)}{2!} = n$$

4번 선지의 경우, 2번 선지와 동일한 변화 양상을 가정했다. 따라서 환율의 가짓수는 변화가 없으며,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

EBS 해설

2문단에서 ‘교차 환율’이란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세 국가가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두 국가 간의 교차 환율이 존재하며 가짓수는 1이다. 한편 4문단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조건을 적용할 때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는 1보다 많다.

정답 ⑤

04

비교관계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문항번호	오답률	정답	선택지별 비율				
			①	②	③	④	⑤
13	71.3	4	11.7	23.8	19.5	28.7	14.1

1번 선지,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2번 선지, <보기> 상황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합의 이후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지문에서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의 상황'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국제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는 것의 극단적 형태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는 것이며, 이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를 야기한다. 즉, 선지 2번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연결 관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짓이다.

3번 선지,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기 때문에, 기축 통화인 A국을 기준으로 C국의 통화가치가 B국의 통화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합의 이후에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3번 선지는 거짓이다.

4번 선지, 3번 선지에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했다는 추측을 가능하며, 환율이 상승한다. 다만 이번 문제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대된다'는 비례관계를 지식으로 알아야 한다는 점. 이 선지는 '배경지식'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선지가 될 수도 있다.

다만, 5번 선지가 왜 틀리는지만 정리할 수 있다면, 사실 암기를 하지 않고도 나머지 선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5번 선지,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통화 공급은 감소'한다. 이 상황을 <보기>에서는 문제상황으로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하는 방법, 즉,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지문에서의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가 원인이 되어 <보기>에서의 '금리를 올리는 대처'를 했다는 것, 그 점을 기억한다면 5번 선지에 경상수지 악화가 들어가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한편, 금리와 경상수지와 관계는 여전히 암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4번, 5번 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능에서 나왔던 배경지식에 대해 정리하여 암기를 하고 추론문제에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EBS 해설

2문단의 내용을 통해,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세 국가의 합의에 의해 기축 통화인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이 각각 50%, 30% 하락하였다.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이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에 비해 작으므로, 합의 이후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는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합의 이후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가치가 합의 이전보다 낮아져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국가 간 환율에 의해 B국에 대한 C국의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어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정답 ④

Remark 1

<보기>는 그 유명한 플라자합의 이전에, 두 번의 오일쇼크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 세계화 사회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과에 상관없이, 돈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아는 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아래의 흐름을 읽어주시길 바란다.

1. 1971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35달러당 금 1온스를 교환해 주는 금본위제를 하고 있었음.
2. 월남전으로 막대한 전쟁비용이 발생함.
3. 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을 보는 프랑스 등 몇몇 나라는 정말 미국에 달러를 바꿔줄 만한 금이 있을지 의문이 생김.
4. 미국 달러를 돌려줄 테니, 약속한 대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함.
5.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금과 달러 교환을 못해주겠다고 선언하며 금본위제를 포기하였고,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부름.
6. 닉슨쇼크 이후 금 1온스의 가치는 3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올라감. 다르게 말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1/30 토막이 난 것임.
7.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건 가격인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임.

8. 당시 연준 의장은 닉슨의 충실한 개였음. 닉슨은 재선이 필요했고, 재선을 위한 부양책이 필요했음.
9.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을 하는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를 해버리며 양적완화를 시작함.
10. 여기에 오일쇼크까지 와서 유가가 3불에서 12불로 4배나 오르고, 곡물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함.
11. 닉슨은 유가와 곡물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를 만듦.
12. 근원 소비자 물가 항목에서 유가, 곡물 외에도 식음료, 주택 등 물가가 오르는 항목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니, 결국은 의 식주 중에서 의만 남게 됨.

13.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실각하고 카터 정부가 들어섬.
14. 폴 볼커가 구원투수로 연준 의장에 오름.
15. 물가를 잡으려면 당장 보이는 인플레이션만 아니라,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인플레이까지 죽여야 함.
16. 폴 볼커는 성장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에 올인하기 시작함.
17. 일단 금리를 하루에 11.5%에서 15%로 4% p를 올림.
18. 요즘 연준이 0.25%를 올리다가 0.5%를 올린다고 빅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 몇십 배를 한방에 올린 것임.
19.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폭락이 시작됨.
20.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함.
21. 그래도 지미 카터는 연준의 폴 볼커가 하는 일에 터치하지는 않았음.

22. 다음 대통령인 레이건도 재선 실패 우려가 있다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연준에 터치를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함.
23. 폴 볼커는 금리를 더 올려버림
24. 레이건이 되면서 금리가 21.5%까지 올라 감.
25. 금리가 엄청 오르자 이자를 낸다고 물건 살 돈이 줄어들어 경기가 박살 남.
26. 장사가 안되니 미국 중소기업의 40%가 망했고, 대기업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봤자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다고 보고 투자를 포기함. 실업률도 10%를 넘기 시작함.
27. 미국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임.
28.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제조업은 폭망했지만, 비싼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돈이 몰려오며 달러 환율이 다시 높아짐.

29. 미국 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가자 일본이 혜택을 가장 크게 봄.
30. 미국보다 환율이 낮아진 일본은 싸게 수출을 할 수가 있어서 수출이 대박이 났고, 독일을 넘어 제조업 최강국에 올라감.
31. 미국의 무역적자 40%를 일본이 내는 상황이 됨. 독일도 개꿀잼 상황이었음
32.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그냥 두지 않았음

33. 1985년 9월 22일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G5 회기가 열렸고 타깃은 일본과 독일이었음
34. 미국은 일본에 엔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박을 했고, 수출 대부분을 미국에 하고 있었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임.
35. 플라자 합의로 달러당 250엔이던 환율이 몇 달 만에 120엔으로 반 토막이 남. 달러당 엔화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말이 고, 일본 수출품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는 말임.
36. 일본 수출이 줄어들어 플 라자합의 다음 해인 86년에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함.

37. 수출로는 답이 안 나오자, 일본은 내수를 살려서 성장을 하려고 함
38. 내수를 살리려고 기준금리를 6%에서 2.5%로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
39. 저금리와 규제완화 콤보로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몰림.
40. 돈이 싼 이자로 쉽게 대출되니 대출을 풀로 받아 부동산을 샀고, 그 부동산은 금세 가격이 올라감.
41.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다시 대출한도가 생겼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부동산 광풍이 시작됨
42. 도쿄의 부동산가격은 87년과 88년 사이 3배가 오름
43. 우리로 치면 2호선 역세권인 도쿄 메트로 역세권은 더 크게 오름.
44. 신바시, 아사쿠사는 10배, 아오야마는 15배가 1년 만에 오름. 부동산 줄부들이 넘치게 됨
45. 저금리와 대출 경쟁은 부동산도 올렸지만 일본 주가도 폭등시킴.
46. 세계 시가총액 2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이 일본 기업인 상황이 됨.
47.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자 줄부들이 넘치는 돈을 마구 쓰는 거품경제 시기가 시작됨.

48. 90년이 되자 일본 정부는 거품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함
 49. 금리를 다시 올리고 부동산에도 규제를 함.
 50. 2.5%이던 기준금리를 다시 6%까지 올렸고, LTV를 70%까지로 제한하는 등 부동산 대출에 규제를 때림
 51. 부동산 시장이 한방에 가버림
 52. 경기 침체에 노령화가 더해지며 20년간 회복을 못하는 장기 침체가 시작됨
-
53. 미국의 금리인상은 1981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54. 은행 예금이자 높으니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임.
 55.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가니, 인플레이션 14%를 감안해도 은행에 예금하면 7% 포인트가 넘는 수익이 생기는 것임.
 56.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와 줄어드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함.
 57. 인플레이션율이 1980년의 14.6%에서 9%로 꺾였고, 1982년에는 4%, 1983년에는 2.4%까지 떨어짐.
 58. 인플레이션이 잡히자 미국은 긴축을 풀고 경기 부양을 다시 시작함.
 59. 미국의 장기 호황이 다시 시작됨.
 60. 1980년 817포인트까지 내려갔던 다우지수가 1983년 3월 1,130포인트까지 상승했고, 1987년 1월 8일에는 2,000선을 돌파함.
 61. 볼커가 유발한 국제적 금융 긴축은 소련의 경제 상황에 치명타를 가하면서 소련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62. 미국이 양강이 아닌 제1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만든 계기 중 하나로 평가받음.
-
63. 반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남미와 동유럽, 아프리카 상당수 국가들의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회수됨에 따라 외채 부담이 커지며, 국가 부도가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함
 64. 이번에 연준 의장이 언급한 폴 볼커는 이렇게 무서운 말인 것이고, 미 증시가 금요일 밤에 들쭉인 이유임.